

해남군 '물반 고기반' 프로젝트

개불·고막 등 고부가 수산종묘 방류 연안어장 살리기

올해 해수면 112곳 6억여원 투입 어민소득 증대 기여

해남군이 어민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반, 고기반 세상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민들의 큰 호응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어장 환경오염, 기후변화, 불법어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연안어장을 살리고 지역특성에 적합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23개소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개 품종을 방류(사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방류대상 수면과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 방류대상 수면은 112개

소에 달하며,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5개 품종의 방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6월 현재 9개면 44개 어촌계에 개불·해삼종묘·바지락·가무락·고막종파 등을 방류했으며, 향후 해수면에 꽃게·조피볼락·넙치·대하·보리새우와 내수면에 봉어·자라·뱾장어·동자개·참개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특히 바지락·고막·가무락 등 종래사업은 부녀자들이 손쉽게 맨손어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물반, 고기반'의 풍요로운 어장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고막종파 가격상승과 생산량 부족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7월중 관내 2~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고막유생을 직접 구입, 고막치과 시범양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화순 개미산에 '인공 폭포' 만든다

하니움 스포츠센터 주변

2억 들여 명품 경관 조성



를 자유낙하하게 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폭포높이는 45m로, 삼부에서는 폭 1m 한 줄기로 내려오다 중간 바위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하단부는 폭 15m 넓이로 낙하하게 된다. 낙하한 물은 다시 인근 화순천으로 흘러들어가게 설계된다.

폭포가 세워질 개미산은 하니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다 주변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증모터를 이용해 화순천 물을 개미산 정상까지 끌어올린 다음, 이

전남 특산물 '기정떡' 소비 늘린다

보관·크기 등 문제점 보완 급식·수출 확대

전남 특산물인 '기정떡'(일명 솔떡)의 포장을 소형화·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소비시장이 개척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강정화 박사는)는 최근 기정떡 포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을 개발해 도내 학교급식업체 납품은 물론 캐나다 토론토(2천kg)와 중국 상해(1천

kg)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정떡 포장은 밀폐되지 않은 낱개포장으로 위생이 취약하고 실온에서 쉽게 땅에 젖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낱개 크기가 너무 커 먹기 불편하고 한꺼번에 전량을 소비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 보관시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송기통기자 song@

이에 따라 식품연구소는 떡과 포장 상자 크기를 소형화·다양화하고 밀폐형 낱개 포장지를 개발, 상온에서 유통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또한 상품의 고급화로 낱개포장 판매가가 기존 277원에서 333원으로 50원 높아져 가공농가의 연간 매출액 역시 1.8억원 향상이 기대된다.

강정화 박사는 "앞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한 남도 떡의 차별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원우기자 wncn@

화순군 화순읍 개미산에 자연스러운 폭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증모터를 이용해 화순천 물을 개미산 정상까지 끌어올린 다음, 이

'바다생명 문학의 집'

신안 암해도에 건립

군, 내년 9월 준공

신안군 암해도에 '천사의 섬 바다생명 문학의 집'이 들어선다.

신안군은 '천사의 섬 바다생명 문학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선태 목포대 교수)와 바다생명문화와 신안문화 진흥을 위해 문학의 집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의 불모지인 신안에 한국 최초로 바다생명을 주제로 한 문학의 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목포 출신 김자하 시인이 바다생명 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전남의 중견 건설업체인 ㈜근학건설 김호남 대표가 압면해 송공리의 건립 예정지와 건축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에 따라 문학의 집 건립이 성사됐다. 2천100㎡ 부지에 건립될 문학의 집은 다음달 초 착공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조원우기자 wncn@

군

내년 9월 준공

군